

**출장보고서**

**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용역  
해외사례조사를 위한 출장보고서**

2011. 10. 24

**KDI 공공투자관리센터**

## 목 차

I. 출장의 개요 .....	1
II. 주요 면담자 및 면담내용 .....	2
III. 구체적 면담내용 .....	3

## I. 출장의 개요

- 사업명 : 「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」 연구용역
- 출장목적 : 해외공항의 해당시설 사례조사를 위한 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
- 활동내용 : 프랑크푸르트 공항 및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관계자 면담 및 사례조사
- 출장기간 및 장소 : 2011년 10월17일~10월21일(4박 5일), 독일(프랑크푸르트), 네덜란드(암스테르담)
- 출장자 : 김혜영 전문위원, 박지혜 전문연구원

## II. 주요 면담자 및 면담 내용

일시	기관	방문 목적	주요 내용
10.18 (화)	프랑크푸르트 공항 (Fraport)	관계자 면담 및 해당시설 답사	-공항의 소유 및 운영현황 -화물터미널 및 급유시설의 소유 및 운영현황 -해당시설 답사
	프랑크푸르트 공항 (대한항공 화물터미널)	관계자 면담 및 해당시설 답사	-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운영현황 청취 -해당시설 답사
10.19 (수)	암스테르담 스킵홀 공항 (Schiphol Group)	관계자 면담	-공항의 소유 및 운영현황 -화물터미널 및 급유시설의 소유 및 운영현황
10.20 (목)	암스테르담 스킵홀 공항 (대한항공 화물터미널)	관계자 면담 및 해당시설 답사	-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운영현황 청취 -해당시설 답사

### Ⅲ. 구체적 면담 내용

1. 프랑크푸르트 공항 Fraport 면담(Felix Kreutel, Senior Executive Manager, Real Estate development)

#### □ Fraport AG의 지분구조

- Fraport AG 지분의 약 51%를 공공지분(Hesse주, Frankfurt시)이 보유, 나머지는 상장되어 있으며 10%는 Deutsche Lufthansa AG가 보유
- 기존에는 공공지분 100%, 정부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Fraport AG 지분을 민간에 상장을 통한 매각
- 높은 배당률로 공공지분의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음

#### □ Frankfurt 공항의 소유 및 운영

- Fraport AG가 공항 전반을 소유, 운영
- 공항의 토지는 모두 Fraport AG가 소유, Long term Heritage Lease의 방식으로 토지를 민간에 장기 임대
- 공항의 투자 및 통제는 Fraport가 자체적으로 주관해 옴

#### □ 화물터미널의 소유 및 운영

- Frankfurt 공항의 화물터미널은 크게 CargoCity North와 South로 구분됨
- CargoCity North에는 현재 Lufthansa Cargo만 있음.
- CargoCity North에서는 토지와 화물터미널을 모두 Fraport가 소

유하고, Lufthansa Cargo 등에게 임대,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 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

- CargoCity South 지역은 과거 미 공군 시설이 있었으나, 철거 후 현재 화물터미널 전용구역으로 개발, 주요 물류업체, 포워딩 업체, 항공사 등이 이용, 창고 및 사무실로 이용
- 화물터미널 이용업체에는 토지만 Fraport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.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편
- 창고건물은 이용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옴.
- 화물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전적으로 Fraport와 이용업체 간 Nego에 따라 결정
- 임대기간은 EU Law에 따르면 5-10년이나, 현재 15-20년의 장기 임대(최장 60년까지)를 주고 있음.
- 토지 및 창고(이용자 개발)는 임대기간 이후 Fraport의 소유가 됨.
- Fraport의 100% 자회사로 화물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Fraport Cargo Services의 건물은 현재 Fraport가 소유
- 과거에는, self-handling이 많았으나 현재는 화물처리업체 및 대리업체 등의 이용에 따라 구조가 복잡화, 포워딩 업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음.
- Fraport는 직접 향후 더 많은 창고를 개발할 계획

급유시설 소유 및 운영

- 급유시설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인 HBG 사에 의해 투자, 개발되었으며 HBG사가 소유, 운영

## 2. 프랑크푸르트 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면담(대한항공 박명규 부장)

### □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운영현황

- 대한항공은 화물터미널 창고를 handling 업체인 LUG로부터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, 조업(창고 내 화물조업 및 항공기 지상조업 모두 수행) 또한 LUG에 위탁하고 조업료를 지급
- LUG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외에도 30여개 업체의 조업 담당
- 통관은 대리점 및 화주가 알아서 수행
- 모든 화물은 항공사 화물창고로 접수된 뒤 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이동, 포워드 화물창고에서는 바로 계류장으로 이동 불가
- 화물터미널은 위치에 따라 airside에 접한 1st warehouse와 2nd warehouse로 구분, Frankfurt 공항에는 Fraport, LUG, Aviapartner 등 3개의 1st terminal가 있음.

## 3. 암스테르담 스키펴 공항 Schiphol Group 면담(Saski van Pelt,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)

### □ Schiphol Group의 지분구조

- Schiphol Group의 지분은 파리공항과 전략적으로 교환한 8% 지분을 제외하고는, 중앙정부 및 암스테르담 시, 로테르담 시가 보유

□ 스키플 공항의 소유 및 운영

- Schiphol Group이 공항 전반을 소유, 운영
- 주요 수입원은 Real Estate 부문에서 창출, 리스 또는 건물 공급
- Aviation 부문에서 창출된 수입은 Aviation 부문을 위하여만 지출이 가능. 착륙료만 정부에 의해 규제
- 물류 개발 계획으로 화물 터미널과 철도를 연계하여 육상 운송시간을 감소시킬 계획
- 공항의 토지 및 건물은 모두 Schiphol Group이 소유, 5-20년 등 Nego에 따라 민간에 임대
- 부동산 부문이 주요 수입원이며, 리스 및 건물 제공
- 공항구역 외의 개발은 SADC(Schiphol Area Development Company)가 담당,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투자자들과 협력하여 개발,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
- SADC는 North Holland 주, Haarlemmermeer시, Amsterdam시, 그리고 Schiphol Group 이 각각 25%의 지분을 보유
- 착륙료만 정부에 의해 규제

□ 화물터미널의 소유 및 운영

- Schiphol Group이 소유, 토지 및 창고건물을 조업사 등에 임대

- 화물터미널의 유지보수는 공항당국의 책임
- 물류업체-> 포워더-> 세관-> 항공사로 화물 이송

□ 급유시설의 소유 및 운영

- 정유회사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인 회사(PLC, public limited company)가 급유시설 소유 및 운영
- 항공유 저장, hydrant system을 통한 급유
- 공항당국은 operating license를 통해 급유시설 운영자를 통제
- 토지는 공항이 소유,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 사용
- Aircraft Fuel Supply B.V.가 운영, 유지보수

4. 스키폴 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면담(대한항공 류연부 부장, Aviapartners Gerald-Commerce Manager, Herold ter Beest-Security Manager, Tim Snelleman-Account Manager)

□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운영현황

- 대한항공은 화물터미널 창고를 handling 업체인 Aviapartners로부터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, 조업 또한 Aviapartners에 위탁하고 조업료를 지급
- Aviapartners는 Schiphol Group으로부터 건물을 임대
- Aviapartners는 창고조업 및 지상조업까지 담당, 동물 및 위험물 등을 모두 취급가능한 면허 보유

- 각종 면허는 정부 당국의 권한
- Schiphol Group은 조업은 전혀 담당하지 않고 있음.